

성탄케이크 데커레이션을 위해

케이크 장식 스타일은 독특한 재료가나 제작방법보다는 기성제품을 쓰는 것이 좋다. 성탄절 케이크 판매가 이브인 24일 저녁과 성탄절 당일 오전 중으로 피크타임과 소멸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생산시간도 최소화돼야 한다.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샌크림류는 보존기간과 조건이 까다로워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좋다. 케이크를 예쁘고 먹음직

각 제조업체들이 95년도 신상품으로 선보이는 것과 매년 히트상품으로 꾸준히 애용받는 소품들을 살펴보자.

길전물산

길전에서는 케이크데커레이션 소품은 대부분 취급한다. 장미꽃과 같은 것에서부터 종류가 다양하며 성탄용으로든 웬만한 소품은 모두 구비하고 있다.

플라스틱과 식재료를 모두 원료로 한다. 올해는 산타크로스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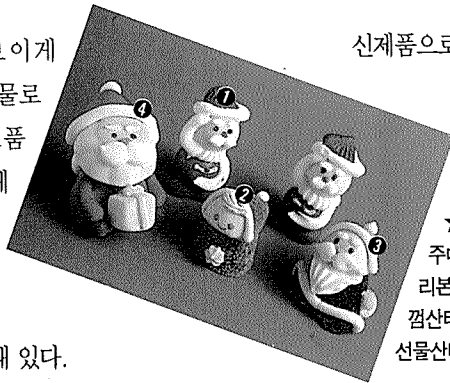
D-Day 55일

성탄케이크 데커레이션용 소품모음과 선물용 패키지상품 공개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제과점 최고의 명절인 크리스마스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제품을 준비하고 생산계획을 세워야 할 제과점 입장에서 한달은 오히려 짧은 시간일 수 있다. 크리스마스 소비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도 제과점 케이크로 그날의 축하의미를 갖고자 하는 고객은 아직 많다. X-MAS용 케이크를 준비하는 제과점을 위해 X-MAS용 케이크 데커레이션 소품과 케이크와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업체 선물용 패키지 상품을 소개한다.

스럽게 보이게 하는 장식물로 사용할 소품들이 성탄케이크용으로 재료 시장에 많이 공급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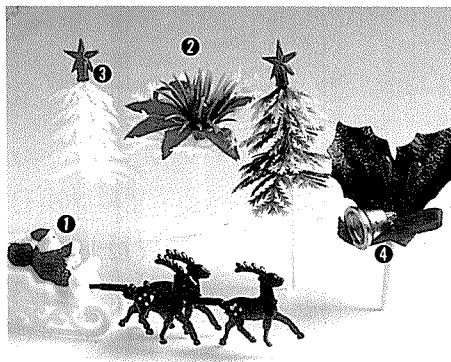


신제품으로 선보인다. (가격은 제과점 공급 가격임)

★산타류

주머니산타(①)/400원
리본산타(②)/270원
검산타(③)/320원
선물산타(④)/360원

주로 껌페이스트나 머랭, 젤리 등을 원료로하여 성탄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소품들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크리스마스트리라고 하는 눈내린 겨울나무나 산타할아버지, 성탄종 등이다. 또한 케이크 데커레이션의 포인트인 사인판에는 성탄의 의미를 담은 문구들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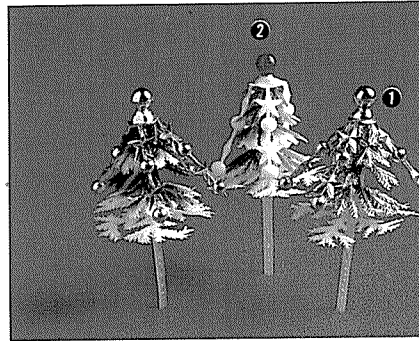


★소품류

사슴썰매(①)/160원
눈송이(②)/80원
청·백츄리(③)/80원
열매픽스(④)/160원

대산산업

지난해 청·백색 성탄트리를 빅히트시킨 대산산업은 올해 성탄트리를 변형시켜 별과 방울을 첨가한 트리를 선보인다. 특히 황금색 도금을 입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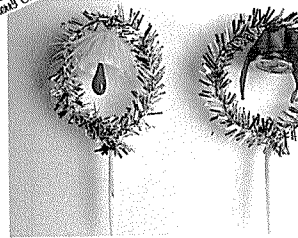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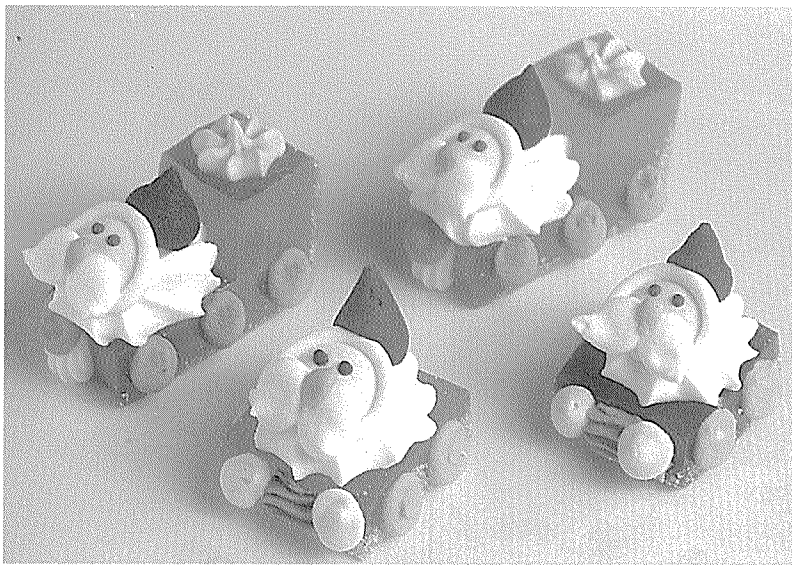
★성탄트리

금츄리(①)/150원
방울+별츄리(②)/110원
청츄리/60원

★소품

링츄리/110원
사인판/80~100원





삼호데코

작년 머랭 산타를 만들었던 삼호 데코는 올해 머랭과 젤리를 조합시켜 자동차와 기차를 타고 가는 산타크로스를 만들었다. 젤리는 천연색조를 선택하여 케이크의 화려한 장식에 어울린다. 가격은 250원과 300원대로 구성되어 있다.

★산타류

기차산타, 자동차산타

코롬방제과

코롬방에서는 초콜릿 사인판과 메달, 각종 장식소품들을 공급한다. 지난해에도 케이크 데커레이션을 위해 가장 많이 선택됐던 사인판을 코롬방에서 만들어 낸 선례가 있다. 많이 이용되는 초콜릿 사인판과 함께 별·초와 같은 초콜릿 소품 등이 있다.

올해는 통나무집(크기 小, 大)과 물레방아를 신제품으로 선보인다.(공급가격은 부가세 별도임)

★사인판



촛불(大) X-1/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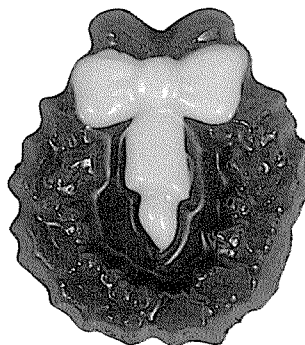


리본벨(大) X-4/230원



리본 X-2/170원

★소품



환초 X-17/100원



이색별(大) X-18/100원



통나무집(大) X-7/290원



물레방아 X-8/270원

성탄의 무드를 더해가는 선물용 패키지 상품들

크리스마스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탄의 기쁨과 함께 가까운 사람들과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어한다.

축하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 성탄 케이크를 사는 것처럼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다. 어릴 때 산타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해 머리맡에 양말을 놓아두고 잠들었던 기억을 대부분 갖고 있을 것이다.

선물용으로 제과점 판매가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해 본다.

주로 케이크와 함께 패키지로 판매해 볼만한 제품들로 성탄의 분위기에 맞춰 각 업체에서 제작한 것들이다.

로얄제과

로얄제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Box 스타일 제품을 선보인다. 주로 초콜릿과 캔디류를 선물을 주는 산타크로스나 눈 오는 겨울 풍경과 같은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포장 디자인하여 지(紙)류나 캔(can)류로 Box처리하였다.



스탠드 RC-22/8,000원
 웨이리파티 RC-23/8,000원



기프트 RC-24/6,000원

리리제과

산타크로스과 캔디를 매치시켜 인형화한 제품들이 주를 이룬다. 특히 올해 주력 상품인 스머프 산타에는 캐롤송이나 '삐-'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멜로디 장치가 돼 있고, 각 제품을 투명 비닐 봉투로 포장 후 적색 링 손잡이와 라벨을 부착하여 소지가 편리하도록 했다. 라벨에는 수신자(To:)와 발신자(From:)란을 만들어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을 메모할 수 있도록 한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라벨(수신과 발신을 메모할 수 있는 라벨)



스머프산타(中)/
 15,000원,
 산타장화/
 10,000원



뉴산타/15,000원



산타바구니/20,000원

케이 앤 에스 상사

제과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벨기에산 무알콜 삼페인으로 패션후르츠라는 열대 과일을 원료로 한다.

무알콜이면서도 피즈(폭발) 현상이 있어 유아나 청소년이 있는 가정의 가족모임에서 축하 분위기를 내기에는 더욱이 좋은 상품이다.

패션후르츠휘쯔/10,000원

